

報心錄에 수용된 보은설화 연구

김 영 만*

目 次

I. 서 論	1. 活人譚
II. 報心錄의 보은 구조	2. 水族類 보은설화
III. 보은설화의 수용 양상	IV. 결 論

I. 서 論

설화가 구비문학의 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고소설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설화학’이니 ‘민담학’이니 하는 용어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¹⁾ 설화 연구의 역사가 비록 짧다고는 하지만 그간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고 또 왕성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과가 거두어지리라 확신한다.

고소설의 연구에 있어서도 설화와의 관련성을 천착한 업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원설화의 탐색이나 설화의 소설화 과정의 연구가 그것이다. 그래서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흥부전 등 대표적인 고소설 작품은 거의 충분하게 설화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

* 부산수산대학교 강사

1) 金烈圭 外 3名 共著, 民談學概論(一潮閣, 1982); 曹喜雄, 說話學 綱要(새문社, 1989).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報心錄〉은 작품 자체의 구조와 의미에서나 설화와의 관련에서나 거의 관심이 두어지지 않았고 다만 몇몇 소설론에 그 경계가 소개되어 있는 정도다.²⁾ 이 소설은 〈錦襄二山〉이나 〈明沙十里〉라는 제목으로도 출판되었는데³⁾, 각 회의 내용을 略述한 문장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문으로 된 선행본이 있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⁴⁾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은혜를 베풀고 갚는 사건들이 교묘하게 얹혀져 있어 구성면에서도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작품의 구조나 설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주로 〈보심록〉이 보은설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연구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보심록〉의 순차적 단락을 토대로 하여 보은 구조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본 소설이 수용하고 있는 보은설화의 유형을 분석하여 그 수용 양상이 어떠한지를 연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텍스트는 東國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編著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亜細亞文化社, 1976) 第2卷 pp.477-620이다.⁵⁾

II. 報心錄의 보은 구조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 하나이다. 그래서 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불교 등 여러 종교에서도 보은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나라 속담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2) 周王山, 朝鮮古代小說史(正音社, 1950), p. 294; 金起東, 韓國古代小說概論(大昌文化社, 1956), p. 288; 申基亨, 韓國小說發達史(彰文社, 1960), pp. 360~4; 鄭柱東, 古代小說論(螢雪出版社, 1975), p. 287, p. 112.

3) 板本에 대해서는 李能雨, 이야기책〈古代小說〉 旧活字本 調査 目錄, 淑明女子大學校論文集 第8輯(1968);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宣明文化社, 1975), p. 388. 禹快濟, 旧活字本古小說의 출판 및 연구현황 검토, 韓國古典文學研究會 編著, 古典小說 研究의 方向(새문社, 1985) 등을 참조할 것.

4) 金起東, 韓國古代小說概論(大昌文化社, 1956), p. 288 및 申基亨, Op.cit., p. 360 참조.

5) 앞으로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活字本’이라 略稱하고 면수만 적기로 한다.

남의 공을 모른다'든지 '사람을 구하면 양물을 하고 짐승을 구하면 은혜를 한다'고 하여 인간으로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의 기본 윤리 중의 하나인 보은은 고소설에서도 주제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보은 話素가 들어 있는 고소설로서 報恩奇遇錄·옥단춘전·이태경전·김회경전·장국진전 등등 많이 있고, 보은 話素가 작품 속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으로 숙향전·이운구전, 그리고 보심록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작품들이 보은 話素를 차용한 것은 그만큼 보은을 당시의 독자들이 중요시했음을 뜻한다.

그러면 보심록의 보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편의상 順次的 단락을 먼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심록의 순차적 단락

- ① 양승상이 늦게 얻은 아들 세충을 친구의 자식인 화익삼, 증운효와 함께 길러 모두 급제한다.
- ② 양승상의 아들과 왕상서의 딸과의 혼인이 양승상 내외의 病死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 ③ 장군 동필적이 권세를 장악하고 왕소저를 아내로 맞으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양세충은 3년상 후 왕소저와 혼인한다.
- ④ 화익삼은 양승상이 유신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다가 남의 돈을 갚지 못하여 물에 빠져 죽으려는 증소저를 구하고 빚을 대신 갚아준다.
- ⑤ 양세충은 노자가 떨어져 죽을 고비에 이른 구돌평을 구하고, 또 자기의 살을 베어 병든 증운효를 살린다.
- ⑥ 동필적이 안문태수 주개를 심복으로 만들어 병사를 일으켜 황성을 공격하게 한다.
- ⑦ 동필적이 왕에게 진의하여 거짓으로 주개의 항복을 받고, 양세충의 위조 격서를 왕에게 바쳐 그를 옥에 가두게 한다.
- ⑧ 동필적의 모함으로 양세충은 정배가게 되어 부인에게 유복자를 부탁하며 화·증 양인에게 뒷일을 당부한다.
- ⑨ 동필적이 세충을 죽이려고 구돌평을 자객으로 보냈으나 구돌평은 그가 은인임을 알고 배에 태워 달아나게 한다.
- ⑩ 왕부인은 동필적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거기서 유복자 두성을 해산하여 몰래 감춘다.
- ⑪ 화·증 양인이 비단 주머니를 옥에 보내 아이를 빼와 증운효가 몰래 기르고, 화익삼은 증운효의 자식을 대신 데리고 산에 들어간다.
- ⑫ 구돌평은 동필적의 명으로 화한림과 아기를 잡아오다가 은인임을 알고

풀어주니 최판관에게 구출되고, 양세충은 양승상이 도와준 유신의 집에서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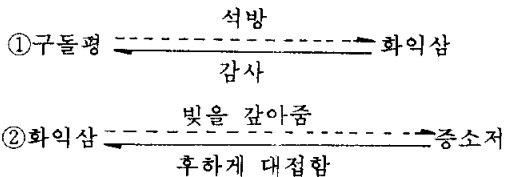
- ⑬ 왕부인이 동필적에게 죽게 되었을 때 구돌평이 탈출시켜 주고, 서해용녀의 도움으로 남경에 간다.
- ⑭ 증부인 내외에게 구출된 왕부인은 그 집에서 화익삼과 만나 반가워하며, 증부인의 은혜에도 감사한다.
- ⑮ 권세가 점점 커진 동필적이 천자의 자리를 뺏으려 하자 조정에서는 그의 兵權을 빼앗는다.
- ⑯ 동필적이 거사를 일으켜 천자의 군사를 이기니 8년간 도술을 닦은 증두성과 화시탈이 나라를 구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 하산한다.
- ⑰ 황청일이 공격에 실패하자 증두성, 화시탈이 동필적과 싸워 이기니 천자가 두 사람을 대원수, 선봉으로 삼는다.
- ⑱ 양세충이 동필적의 반란 소식을 듣고 나라를 구하고 원수를 갚으려 증원수에게 가서 그의 스승이 된다.
- ⑲ 증원수가 화선봉에게 작전을 지시하여 적을 대패시키고 구돌평을 사로잡는다.
- ⑳ 양세충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니 증원수는 자기가 바로 아들이라 하여 부자 상봉하고 구돌평을 은인이라며 죄를 용서해준다.
- ㉑ 동필적의 불 공격에 양원수는 비를 불러 이기고, 도망치는 동필적을 화선봉이 사로잡는다.
- ㉒ 화선봉과 양원수 부자가 유복자 안부를 알려고 온 화선봉을 만나 서로 반가워한다.
- ㉓ 화선봉이 증부인 집에 와 왕부인을 모시고 가니 왕부인은 남편과 아들을 만나게 된다.
- ㉔ 증운효의 아들은 장원급제하여 어머니를 만나며, 증운효는 황성에 가서 양세충과 화선봉을 만나고, 양원수와 화선봉은 황제의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린다.

이상의 순차적 단락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소설은 양세충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 인물들, 즉 화익삼·증운효 양인과 그 부인들, 그리고 구돌평·증소저·유신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분량이 430매 정도로 길고 사건이 복잡한 데 비하여 구성이 긴밀하게 짜여져 있어 매우 흥미를 끄는 작품이다.

이제 본 소설에 나타난 施恩과 보은의 구조를 네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當代 보은형

보은 설화에서는 施恩과 보은이 서로 짝을 이룸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즉 施恩의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보은이 있기 마련이며 또 보은은 반드시 施恩이 있어야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施恩과 보은의 행위가 當代에 이루어지는 것이 當代 보은형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가 본 소설에서는 2번 나오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⁶⁾



①은 구돌평이 불잡아 가던 화익삼과 양세충의 아기를 풀어주고, 화익삼은 후에 구돌평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구조이다.

②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치욕을 당하게 된 증소저의 빛을 화익삼이 대신 갚아주어 그녀를 구하고, 최판관의 부인이 된 증소저는 남편이 구출해온 화익삼과 아기를 잘 대접하고 兄妹之義를 맺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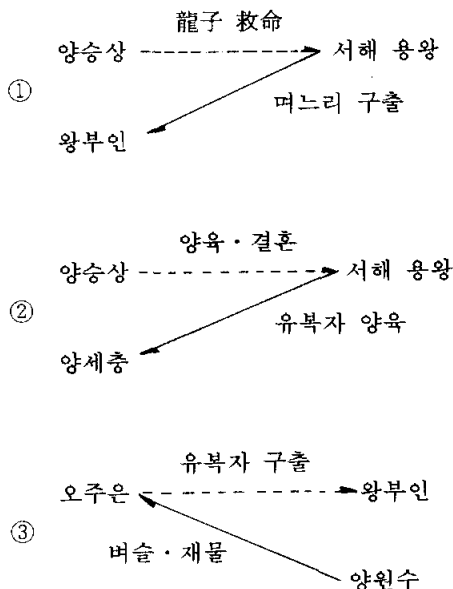
2. 下代 보은형

이 유형은 下代에 와서 보은이 이루어지는 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施恩者가 없어서 下代에 보은을 하는 경우와, 은혜를 받은 자의 下代가 施恩者에게 보은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구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6) 필자는 金現感虎說話에 나타난 佛教思想攷, 국어국문학 제18, 19집(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2)에서 施恩과 보은의 구조를 圖式化하려는시도를 해 보았는데

施恩과 보은의 과정이 下代에까지 연장된 것은 그 사이의 시간 경과로 말미암아 施恩者가 죽고 없거나 은혜를 입은 자가 죽고 없어서 下代에 와서 보은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當代에 보은하지 못하고 下代에 와서 보은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은 주로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보은 구조가 될 것이다. 본 소설에서는 이러한 下代 보은형 구조가 3번 나오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은 꿈에 서해 용왕이 나타나 禍網에 걸린 두 아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양승상이 생일 선물로 들어온 생선 두 마리를 강물에 놓아주고, 서해 용왕은 그 보답으로 며느리인 왕부인과 시종이 옥졸들에게 잡히기 직전에 용녀를 보내어 구해주는 구조이다.

②는 양승상이 의탁할 곳 없는 화익삼과 증운효를 친자식과 다름없이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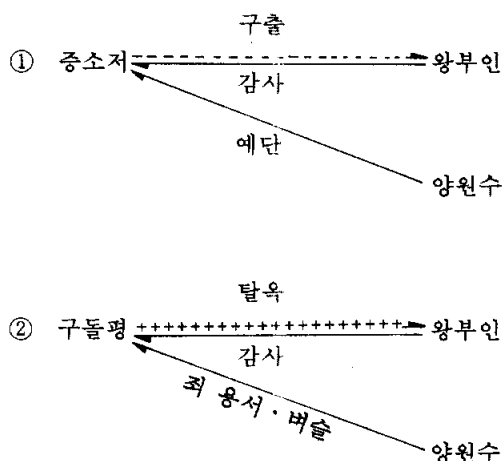
본 소설과 같이 복잡한 구조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했다. 그림에서 점선 ()은 施恩, 실선 ()은 보은을 뜻한다.

육하여 결혼시키고, 이들은 양세충의 아들을 키워 훗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하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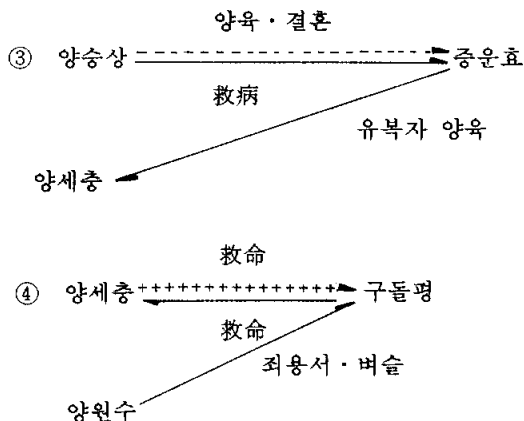
③은 女醫인 오주은이 동필적의 侍婢의 눈을 속여 옥중에 있는 왕부인의 유복자를 비단주머니에 감추어 몰래 구출해 화·중 두 사람에게 전해주고, 왕부인의 아들 양원수는 훗날 걸식하는 오주은의 아들에게 벼슬과 재물을 주어 은혜를 갚는 구조이다.

3. 결합형

이 유형은 2형이 좀더 복잡하게 전개된 것으로서 보은이 下代에까지 걸치는 동시에 施恩이나 보은이 한 사람에게 겹치거나 보은의 행위가 또다시 施恩이 되어 다른 보은의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서사 진행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성도 복잡하게 되며, 따라서 설화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볼 수가 없다. 본 소설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네 번 나타나는데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⁷⁾



7) ②와 ④의 ++++++→는 보은인 동시에 施恩 행위가 된 것을 말한다.



①은 최판관의 부인이 된 증소저가 탈옥하여 달아나던 왕부인을 구하여 살게 해주고, 왕부인은 목숨을 구해준 것을 증부인에게 감사하고, 또 왕부인의 아들 양원수는 부모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여 증부인에게 예단을 드리는 구조이다.

②는 구돌평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준 양세충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의 부인인 왕부인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왕부인은 자기를 탈옥시켜준 데 대해서 구돌평에게 감사하고, 또 그의 아들 양원수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구돌평의 모반한 죄를 용서해주고 높은 벼슬을 주는 구조로서, 구돌평의 왕부인에 대한 施恩은 왕부인의 남편인 양세충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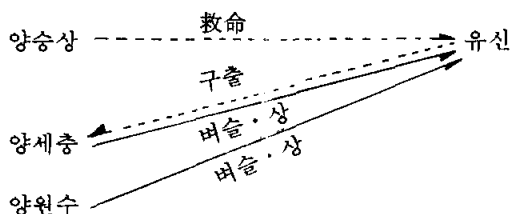
③은 양승상이 의탁할 곳 없는 증운효를 데려다 친자식과 다름없이 양육하여 결혼시켜 주고, 양승상의 아들 양세충도 자기 살을 베어 병든 증운효를 살리니 증운효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 자식을 양세충의 자식인 양가장하여 멀리 보내고 대신 양세충의 유복자를 데려다 길러주는 구조이다.

④는 양세충이 증운효의 병을 고칠 처방을 얻어오는 길에 노자가 떨어져 거의 죽게된 구돌평을 살리고 돈 20냥까지 주는 은혜를 베풀자 구돌평은 동떨어진 계획에 따라 양세충을 죽이려다가 그가 바로 생명의 은인임을 알고 풀어주고, 또 다시 그의 아들 양원수는 구돌평을 父子 천륜을 깨닫게 해준

은인이라며 동필적의 부하로 있으면서 모반한 죄를 용서해주고 높은 벼슬까지 주는 구조이다.

4. 3대 보은형

이 유형은 3형보다 보은 구조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유형인데, 前代에 베푼 은혜가 2대를 거쳐 3대째에 갚아지는 형으로서 본 소설과 같은 장편 구성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형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나라에 세금낼 돈을 도적에게 잃고 죄에 빠져 자살하려는 유신에게 양승상이 3천냥을 빌려주어 목숨을 구해 주니, 유신은 은인의 아들 양세충을 만나 편히 머물게 하며, 또 양세충과 그의 아들 양원수는 목숨을 구해 준 그에게 벼슬과 후한 상급을 주어 은혜에 보답하는 구조이다.

이상으로 보심록에 나타나 있는 보은의 유형을 當代 보은형, 下代 보은형, 결합형, 3대 보은형 등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마다 나타나는 보은 구조를 10가지로 구조화해 보았다. 이상 논의한 보은 구조를 종합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목숨을 건진 사람이 원조자의 도움을 받아 은혜를 갚는 경우

이 설화는 죽을 고비에 놓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건진 뒤에 부자가 되어, 地官이나 대사, 혹은 다른 원조자가 정해준 明堂 자리에 묘터를 쓰려고 찾아온 은인을 만나 그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설화도 보은자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과 그 위기를 벗어나 목숨을 구하는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진다.

첫째로, 나라에 빚을 지고 갚지 못하거나 공금을 횡령하여 옥에 갇힌 사람의 가족들이 서로 물에 빠져 죽으려는 것을 보고 施恩者가 자기 돈을 몽땅 털어 목숨을 구해주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되는 설화 各篇을, 施恩者는 누구인가, 施恩 수단이 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보은자는 어떤 사람인가, 明堂을 정해주어 恩人을 만나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원조자는 누구인가, 恩人을 만나는 과정은 어떠한가, 보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등등에 대해서 일람표를 만들어 보면 <표 1>과 같다.

둘째로, 배가 고파 자식을 잡아먹으려 하거나 다른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쌀이나 무명을 주어 구해주는 경우인데, 원조자가 정해준 明堂이 계기가 되어 은인을 만난다는 점은 앞의 경우와 같다. 이 설화도 앞의 표와 같이 정리해 일람표를 만들어보면 <표 2>와 같다.

(2) 허기를 면한 사람이 明堂을 정해주어 은혜를 갚는 경우

이 설화는 허기진 노인이나 地官이 정성껏 식사 대접을 받고 그 보답으로 明堂을 정해주어 今時發福을 받게 한다는 내용인데, 은혜를 입은 자가 明堂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조자의 개입이 없이 직접 은혜를 갚는다는 점이 (1)과 다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설화 各篇을 施恩者는 누구인가, 보은자는 어떤 신분인가, 施恩 과정은 어떠한가, 發福 과정은 어떠한가, 發福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1〉 목숨을 건진 사람이 원조자의 도움을 받아 은혜를 갚는 경우(1)

번호	소재문헌	시은자	시은 수단	보은자	원조자	은인을 만나는 과정	보은 결과
①	1-2 : 119 ⁸⁾	패가된 집안의 아들	종추렴 거둔 천냥	공금 횡령한 집안의 부인	묘터 구하려 다니다 만난 지관	집에 묵는 동안 여자가 알아봄	따로 준비한 집과 땅
②	1-4 : 245	패가한 아들	외삼촌이 준 천냥	나라에 천냥 빚진 부부	묘터 구하려 다니다 만난 대사	여자가 이야기를 듣고 알아봄	후손 출세
③	2-2 : 335	머슴살던 총각	재지에서 번 돈 천냥	나라에 천냥 빚진 부부	풍수	집에 묵으러 가니 여자가 알아봄	부자가 됨
④	2-2 : 539	가난한 집 아들	조부가 평양감사에게 꺾준 천냥	나라에 빚진 집안의 고부	스님	여자가 귀밀의 집을 보고	명당에 묘를 씀
⑤	4-2 : 58	재산 탕진한 부호의 늦아들	종집에서 얻은 3천냥	공금 못갚은 아전 집 고부	팔죽 얻어먹은 러 온 중	지내온 내력 말하는 것을 듣고	재산 얻고 아들 출세, 동생 맺음
⑥	5-1 : 499	착하고 가난한 사람	남의 발을 매다 캔 금을 판 백냥	나라에 빚진 남 녀	과객으로 가장한 임금	은인 만나게 해 달라고 찬지신명에게 빌어	살림 절반, 결의 형제 맺음
⑦	운석 : 267 ⁹⁾	가난한 집 아들	주은 황금 판 3만냥	국고금 유용한 집안 고부	홍시 따려다 떨어진 중	잘한 일 말하는 것을 듣고	집 주고 형제같이 지냄
⑧	동편 : 257 ¹⁰⁾	게으른 아들	장사해서 번 돈 백냥	나라의 돈 못갚은 부부	도사	지금까지 찾았다고 함	만사대통하고 잘 삼

- 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傳文學大系의 권수와 호수, 해당 자료의 첫 페이지를 가리킨다.(이하 동일)
- 9) 최운식, 충청남도 민담(집문당, 1984), p. 267
- 10) 林東權 編著, 韓國의 民譚(瑞文堂, 1975)의 해당 자료 첫 페이지를 가리킨다.(이하 동일)

〈표2〉 목숨을 건진 사람이 원조자의 도움을 받아 은혜를 갚는 경우(2)

번호	소재문헌	시은자	시은 수단	보은자	원조자	은인을 만나는 과정	보은 결과
①	3-3:80	가난한 사람	무명 두 필	옷과 집을 태우고 죽으려는 내외	기진한 중	확인한 이야기를 듣고	재산 절반, 의남매 맺음, 벼슬
②	7-1:401	가난한 사람	처가에서 얻은 쌀 1가마	배가 고파 부인젓 을 배어 먹으려는 사람	은인을 찾으려고 만든 미륵	미륵이 삼베치마를 두른 사연을 이야기하여	살림 절반, 의형 제
③	7-5:135	가난한 사람	처가에서 얻은 쌀1가마와 떡	배가 고파 아이를 잡아 먹으려는 내 외	거지로 변장한 미 륵	미륵에게 10년 공들여 빌어	재산 절반, 의형제
④	7-5:297	가난한 사람	처가에서 얻은 쌀과 찰밥	배고파 애를 잡아 먹으려는 남자	산신령	은인 만나려고 공을 들여	부자가 됨

〈표 3〉 허기를 면한 사람이 명당을 정해주어 은혜를 갚는 경우

번호	소재문헌	시은자	보은자	시은 과정	발 복 과 정	발복 결과
①	3-3:134	보따리 장수	죽어가는 중	치료	부잣집 과부가 자고 가자며 들어와 부부됨	경상감사, 부자
②	5-2:774	머슴	허기진 노인	도시락을 줌	죽어가는 양반집 처녀를 살려 결혼함	세자의 스승으로 발탁됨
③	7-8:1040	머슴	허기진 노인	새참을 줌	부인이 넘어진 자리에서 은이 많이 나와 부자됨	나라에서 3천석을 받음
④	8-4:726	신 삼는 사람	명풍수	천장에 달아놓은 쌀	부잣집 과부에게 술 얻으려가 부부됨	부자가 됨
⑤	8-6:408	가난한 사람	지사와 대사	죽을 대접함	부잣집 과부집에 쌀 얻으러 가 부부됨	당대 천석자리로 이장함
⑥	8-6:663	늙은 총각머슴	배고픈 대사	점심을 대접함	부자 과부 만나 합궁함	3천석 부자됨
⑦	8-9:179	가난한 총각	허기진 노인	점심밥을 먹임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자라 발복 안됨	
⑧	8-9:255	머슴	허기진 중	점심을 먹임	자고 가자고 찾아온 부인과 부부됨	부인이 천석 문서 내놓음
⑨	8-9:719	가난한 사람	비를 피하는 사람	죽을 정성껏 대접함	부자 과부를 첩으로 맞음	부자가 됨

(3) 기타

施恩 수단이 일정하지 않고 보은자에도 일치하는 점이 없이, 목숨을 건진 사람이 恩人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으로서 (1), (2)를 제외한 나머지 설화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설화들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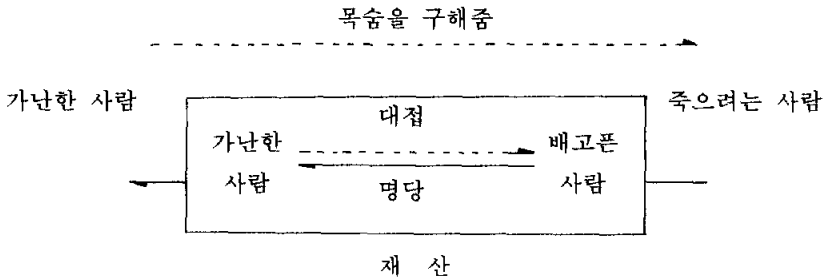
<표 4> 기 타

번호	소재문헌	시은자	보 은 자	시 은 과 정	보 은 과 정
①	2-6:70	가난한 사람	물에 빠진 부자	살림 모두 판 천원을 내놓아 살림	집에 데려가 집과 땅을 줌
②	3-3:96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상주	장사하려고 논 3 마지기 판 돈을 줌	군수로 번 돈을 모두 줌
③	8-3:333	김진사 아들	주인에게 잘못한 종년	죽이라는 것을 살려 주어 멀리 보냄	죽게된 주인 아들을 살려냄

이상의 자료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우선 (1)은 施恩者의 施恩行爲가 대개 두 번 나타난다. 즉 나라에 빚을 진 사람의 가족들이 물에 빠져 죽으려는 것을 보고 받아오던 돈을 모두 털어 주거나 또는 배가 고파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에게 妻家에서 얻어 오던 쌀을 모두 털어주어 은혜를 베풀고 난 뒤에 다시 굶주려 있는 다른 사람을 정성껏 대접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施恩者가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처지인데도 두 번씩이나 은혜를 베푸는 데서 그의 행위가 더욱 劇的인 것이 된다.

그리고, 두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은 今時發福하는 明堂을 잡아주어 은혜를 갚는데, 그 明堂의 위치가 부잣집 장독대나 대나무밭이어서 묘를 쓰기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그 明堂은 바로 施恩者로부터 첫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소유로, 그는 恩人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쓰다가 明堂을 정해준 사람의 도움으로 결국 恩人을 찾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가 施恩者에게 부잣집 땅을 明堂으로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부자가 된 사람은 恩人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설화에서 두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첫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설화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설화집인 溪西野譚, 靑丘野談, 東野彙輯 등의 문헌에 두루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이 설화가 오르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헌설화의 서사 단락은 다음과 같다.¹¹⁾

- ① 강릉선비 김씨는 집이 가난했는데,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 ② 노모가 奴婢文卷을 주면서 호남 섬 중에 흩어져 사는 도망간 奴婢를 推刷해 오라 한다.
- ③ 선비가 그 섬에 가서 奴婢 자손으로부터 千金으로 속량해 준 뒤 文卷을 태웠다.
- ④ 돈을 싣고 오는 길에 금강에서 서로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노부와 여인을 만났다.
- ⑤ 사정을 물으니 노인의 독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구할 돈이 없어 내일 죽게 된다고 하였다.
- ⑥ 선비가 推刷해 온 돈 수천금을 주어 그 아들을 구하게 하였다.
- ⑦ 선비가 돌아와 노모에게 그 일을 고하니 노모가 칭찬하였다.
- ⑧ 노모가 죽자 선비는 地節와 함께 묘자리를 보러 다니다가 한 吉地를 발견하고서 그 밑의 大家에 유숙하러 갔다.
- ⑨ 그 집 머느리가 김선비를 보고 금강의 은인이라 하자 모두 나와 감사했다.
- ⑩ 그 집의 도움으로 장례를 지내고 노비와 田宅文卷을 얻었다.
- ⑪ 그 뒤 선비의 자손이 번창하였다.

한편 (2)와 (3)은 施恩行爲가 한 번으로 끝나며 보은도 원조자의 도움 없이

11) 徐大錫 編著, 朝鮮朝文獻說話輯要(Ⅰ) (集文堂, 1991), p. 253f, 480f, 593f..

施恩者에게 직접 행해진다. 즉 가난한 사람이 허기진 사람에게 자기가 먹을 밥을 대접하니 그 사람이 보답으로 明堂을 정해주는데, 그 곳에 무덤을 쓰니 今時發福이 되어 부자집 과부를 만나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施恩 과정이 (1)보다 劇的이지 못하지마는 施恩者가 남을 도와줄 처지가 못되는 머슴이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1)과 큰 차이가 없고, 보은의 결과 施恩者가 부자가 된다는 점도 (1)과 같다. 다만 보은 수단이 明堂이기 때문에 보은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묘를 쓰고 부자 과부를 만난 뒤에야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은 행위가 직접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정성것 대접

가난한 사람  허기진 노인

명 당

그러면 이상의 活人譚 중에서 보심록이 수용하고 있는 설화는 어떤 것이며 또 그 양상은 어떠한가? 우선 보심록의 活人과 보은 장면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양승상이 세금을 도적에게 잃고 죄에 빠져 죽게 된 유신에게 3천금을 빌려준다.
- ② 화익삼이 그 돈을 받아오다가, 장지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당할 처욕을 피하려고 물에 빠져 죽으려는 증소저에게 주어 그녀를 구한다.
- ③ 후에 증소저는 물에 떠내려오는 화익삼을 구출하여 후대하고 兄妹之義를 맺어 은혜에 보답한다.¹²⁾

이를 보면 이 소설이 앞서의 活人譚 중의 (1)의 첫번째 경우와 같은 설화의 전반부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이 설화 중에서 두 편만 골라 그 서사 단락을 順次的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2) 活字本, pp. 494-7, pp. 540-3

허생원의 확인답¹³⁾

- ① 가난한 허생원 아들이 조부나 평양감사에게 꾸어준 돈 2천냥을 받아온다.
- ②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못에 빠져 죽으려는 사연을 듣고 그 돈을 주어 옥에 갇힌 아들을 살린다.
- ③ 스님이 남의 집 앵두나무 밑을 명당이라며 아버지의 묘터로 정해준다.
- ④ 그 집에 가니 부자가 된 여자가 귀 밑의 점을 보고 은인임을 안다.
- ⑤ 그 집을 얻어 묘를 쓴다.

삼천냥의 보은¹⁴⁾

- ① 부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아들이 종에게 가서 3천냥을 얻어온다.
- ② 나라에 빚진 아전의姑婦가 서로 죽으려는 것을 보고 그 돈을 주어 살린다.
- ③ 장가들어 내외가 빌어먹고 살다가 아버지가 죽는다.
- ④ 찾아온 중을 정성껏 대접하니 山祭堂을 明堂이라며 묘터로 정해준다.
- ⑤ 그 집에 가니 부자가 된 여자가 은인임을 알고 반가워한다.
- ⑥ 明堂에 장사지내고, 재산을 얻어 부자가 되고, 3정승 놓고 잘 산다.

이를 보면 나라에 빚을 진 사람의 가족이 물에 빠져 죽으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받아오던 돈을 모두 털어줌으로써 목숨을 구한다는 施恩의 과정이 설화나 소설에서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린다는지,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진 돈을 몽땅 털어주어 빚을 갚게 한다든지, 집에 돌아오니 기다리던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한다는지 하는 점도 똑같다.

그러나 소설에서의 보은의 과정은, 목숨을 구한 증소저가 후에 최판관의 부인이 되었을 때, 동필적으로부터 탈출하여 물에 떠내려오는 은인 화익삼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사나 스님이 明堂을 잡아준 것이 계기가 되어 보은자가 恩人을 만나 집터를 주고 재산을 나누어주어 은혜를 갚는다는 설화의 보은 과정과 전혀 다르다. 설화를 소설에 수용하는 데 있어서 본 소설의 경우 설화의 전반부 話素만 수용한 셈이다.

또 본 소설의 설화 수용 양상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施恩과 보은의 시간상의 간격이다. 설화에서는 시은 행위와 보은 행위 사이에 있어서 서술의 시간은 물론이고 담화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 즉 나라에 빚진 사람에게

13) 대계 2-2 : 539.

14) 대계 4-2 : 58.

가진 돈을 털어준 얼마 후에 부모가 죽어 묘터를 구하러 다니다가 대사를 만나 明堂을 얻게 되고 그 즉시로 부잣집을 찾아가 묘터와 재산을 얻게 되었으니 그 사이에 다른 사건도 없고 시간상의 간격도 길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서술의 시간도 길고 담화의 시간도 매우 길다. 즉 가진 돈으로 증소저의 빚을 대신 갚아 목숨을 구해주고, 돌아온 뒤 화익삼은 증운효와 의논하여 왕부인이 옥에서 낳은 양세충의 유복자를 증운효가 기르기로 하고, 그는 동필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증운효의 아들을 데리고 영명산에 들어가는 데, 거기서 동필적의 부하 구돌평에게 잡혔지만 그가 은인임을 알아보고 널판지에 묶어 떼내려 보내주고, 이것을 최판관이 구출하여 집에 데려오니 증부인이 은인임을 알고 후대하여 兄妹之義를 맺어 은혜에 보답한다. 그러니 그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상당히 길 것이며 분량상으로 보아도 40여 편이나 뒤에 이러한 보은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같이 施恩行爲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이 전개된 뒤에 보은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건 전개는 이 소설 속의 다른 施恩—報恩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이는 소설이 설화와는 달리 복합구조로 되어 있어 사건 전개상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보은자가 恩人을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설화에서는 대사가 明堂을 정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보은자가 恩人과 만나므로 원조자가 중간에 개입되는 셈이지만, 소설에서는 구돌평이 화익삼을 널판지에 묶어 강물에 떠내려보내줌으로써 증부인이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 구돌평의 행위는 자기 恩人인 양세충에 대한 보은이므로 증부인이 화익삼과 만나는 것과는 인과관계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으니 구돌평은 원조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소설에서는 원조자의 개입 없이 보은자가 施恩者를 직접 만나 은혜를 갚게 되는데, 이는 설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원조자의 존재가 소설에서는 사라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설화와는 달리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능력과 주체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므로 원조자의 개입이 설화 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증소저가 화한림의 은혜를 입는 장면을 보면, 화한림이 장지절에게 돈을 갚아주고 수표를 받아 돌려주니 증소저가 백배 사례하며 이름을

물으나 그냥 가므로 그녀는 恩人이 멀리 갈 때까지 바라보면서 그 면목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고 기억해둠으로써 나중에 화한림을 만났을 때 그가 恩人임을 알게 되는데, 설화에서는 지내온 내력을 말하게 해서 그것을 듣고 恩人임을 알아본다든지 혹은 恩人을 만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려 만나게 되니 소설의 경우 우연성이 훨씬 적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水族類 보은설화

水族類 보은설화는 물고기나 자라 등 水族類가 사람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恩人の 도움으로 풀려난 뒤 후에 그 恩人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화도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색시와의 결혼 話素가 없는 것.

2) 색시와의 결혼 話素가 있는 것.

이제 이 설화를 자세히 분석하여 話素의 유무를 통해 그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색시와의 결혼 話素가 없는 것.

이 설화는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인 거북이나 물고기를 구해주니 그 보답으로 자손을 출세하게 해주거나 부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인데,¹⁵⁾ 여기에 해당되는 설화 各篇을 施恩者와 보은자는 각각 누구이며, 보은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정리해보면 <표5>와 같다.

(2) 색시와의 결혼 話素가 있는 것.

이 설화는 앞의 것보다 더 많은 話素가 들어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인 자라나 물고기를 구해주니 그 보답으로 준 보물 속에서 예쁜 색시가 나와 결혼을 한다는 報恩話素와, 사또나 왕과 같은 적대자가 내기를 걸어 색시를 빼앗으려 하지만 색시의 도움으로 이를 물리친다는 競合話素가

15) 孫晉泰, 朝鮮民族說話의 研究(乙酉文化社, 1950), pp. 225~8에는 放鯉得寶說話라고 소개하고 있고,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一志社, 1976)에는 水族類 보은설화라 하였는데, 필자는 후자의 견해에 따른다.

〈표5〉 水族類 보은 설화(1)

번호	소재문헌	시은자	보은자	보은 과정	보은 결과
①	1-3 : 557	윤씨 시조	큰 잉어	잉어가 다리를 놓아주어 임금이 강화를 건넌	없음
②	5-2 : 350	학자	배에 임금 왕 쓰인 자라	무슨 물건이든지 나오는 보화를 줌.	물건 나오라 함.
③	8-14 : 535	나라에 빚진 사형수	지계에 얹혀 있는 잉어	용왕이 원의 꿈에 나타나 살려주라고 함.	부자되고 사형 면함.
④	석재 : 63 ¹⁶⁾	신삼는 총각	아이들이 갖고 노는 붕어	담는 물건이 두 배 되는 술잔을 줌.	큰 부자가 됨.
⑤	동권 : 115	한량	꼬리 셋 달린 거북	악녀와 싸울 장수 3명 주어 이기게 함.	악녀와 싸워 승리.

〈표6〉 水族類 보은 설화(2)

번호	소재문헌	시은자	보은자	보은 과정	적대자	내기	대결 과정	대결 결과
①	5-1 : 622	가난한 솥 구이	농민에게 잡 힌 자라	괘짝에서 나온 여자와 결혼	대감	장기두기와 말 타고 연못넘기	파리가 없는 대로 두 고 용궁 당나귀 타고	대감을 물리 침
②	5-2 : 101	솥장수	큰 잉어	반지에서 나온 여자와 결혼	사또	내기 바둑과 전 쟁	색시가 준 종이와 두 래박에서 나온 군사 로	사또 죽이고 자기가 사또 됨
③	석재 : 64	어부	아이들이 갖 고 노는 고기	고양이가 색씨 로 변하여	사또	흰뚱 싸기	색시가 시키는 대로 도라지만 먹고	사또를 이김
④	석재 : 65	솥파는 사람	아이들이 갖 고 노는 잉어	물독 속의 잉어 가 여자로 변해	왕	말타고 강건너 기와 군병싸움	물에서 나온 말과 등 지 3개로	왕이 빌면서 많은 돈을 줌
⑤	석재 : 67	나무하는 사람	아이들이 갖 고 노는 붕어	연적에서 나온 색씨와 결혼	왕	말을 타고 강건 너지	붕어가 주는 말을 타 고	왕이 물에 빠 져 죽음

16) 林哲宰, 韓國口伝説話(평민사, 1987)의 해당 자료 첫 페이지를 가리킨다.(이하동일)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설화들을 施恩者와 보은자가 각각 누구이며, 어떤 내기를 걸어 敵對行爲를 하며, 어떤 방법으로 그 내기에서 이기며,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정리해 보면 <표6>과 같다.

이상의 자료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우선 (1)은 고려시대부터 문헌설화로 전해져 왔는데 櫟翁稗說에 보면 通海縣令 朴世通이 거북같이 큰 생물을 백성들이 잡아 도살하려 하는 것을 구하여 바다에 놓아주니 꿈에 늙은이가 나타나 자식을 구해주어 고맙다며 三代가 재상이 될 것이라 했는데 과연 그 말대로 이루어져 보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¹⁷⁾ 그리고 李奎光의 芝峰類說에는 큰 자라를 살려주고 뒤에 배가 파선되었을 때 구함을 입었다는 설화가 소개되어 있다.¹⁸⁾ 그리고 於野談에는 목숨을 구한 잉어가 그 보답으로 훌륭한 아들을 낳게 한다는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¹⁹⁾

이러한 설화를 太平廣記에 있는 중국 설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지만,²⁰⁾ 그러나 이를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太平廣記의 간행이 981년이고 그것이 고려에 수입된 것이 AD1100~1200년 사이라고 보는데,²¹⁾ 櫟翁稗說 所載 上記 설화의 주인공이 近世人으로 되어 있어 고려나 그 이전 사람이니 그 시간상의 전후 관계로 볼 때 일방적인 영향이라고만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거북이나 자라는 가락국 신화나 신라때의 海歌에 나오는 것을 보면 太平廣記가 이 땅에 들어온 시기와는 상관없이 옛날부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 같으며, 중국 사람들이 거북을 미래를 예언하는 靈物로 여겨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 사람들도 이를 토렘으로 숭배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靈物로 신성시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해를 가하는 것을 禁忌視하고, 만약에 사로잡았을 때에는 이를 놓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것이다. 여기에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뒤부터는 불교의 放生儀禮의 영향으로 이러한 풍습이 완전히 굳어졌을 것이다. 자비를 베푸면

17) 李齊賢, 櫟翁稗說 前集-(乙酉文化社, 1974) p. 49f. 金鉉龍, 動物報恩說話와 그 敎訓性, 敎育論叢12(建國大學校 敎育大學院, 1989)도 참조.

18) 金鉉龍, Op.cit., p. 114에서 再引用.

19) 徐大錫 編著, Op.cit., p. 215f에서 再引用.

20) 金鉉龍, Op.cit., pp. 114-22.

21) 金鉉龍, Ibid., pp. 39-41.

보답을 받게 된다는 話素도 이 시기에 첨가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불경 중 六度集經 권3에 보살이 市井에서 자라를 돈을 주고 사서 놓아주었는데 훗날 자라가 그 은혜를 갚았다는 등의 설화가 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²²⁾

이 설화는 淑香伝에 수용되어 있는데, 숙향의 아버지가 어부들에게 죽게 된 거북을 사서 살려준 데 대한 보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²³⁾ 그리고 玉簫奇緣이나 韓氏報應錄에도 고기의 보은설화가 수용되어 있다.²⁴⁾

한편 (2)는 (1)처럼 재물이나 벼슬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용궁에서 얻은 보물 속에서 나온 색시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보답하는 점이 다르다. 목숨을 건진 거북이나 자라는 대개 용왕의 아들인데, 恩人을 용궁으로 데려가면서 다른 보물은 다 거절하고 깨끗이나 작은 반지, 고양이, 연적 등을 가지라고 가르쳐준다. 또 施恩者가 숫장수나 나무꾼 또는 어부 등 (1)보다 더욱 가난한 자여서 예쁜 여자와의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할 처지에 놓인 사람이므로 이런 보은에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잘 나타난다.

그리고 적대자와의 대결과 승리 장면은 혼사장에 話素가 첨가된 것인데, 미친한 신분의 남자와 용궁에서 온 신성한 신분의 여자와의 결혼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화시키려고 내기를 통한 능력 시험에서 주인공이 승리하도록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水族類 보은설화를 보심록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심록의 水族類 보은 장면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양승상의 꿈에 용왕이 나타나 죽게된 아들을 구해달라고 한다.
- ② 양승상이 생일 선물로 들어온 광채나는 고기를 살려준다.
- ③ 그의 며느리인 왕부인이 적병을 피해 강물에 투신할 때 용녀가 보답으로 이를 구해 피신시켜 준다.²⁵⁾

22) 申基亨, Op.cit., p. 298. 이와 비슷한 설화가 李箕永, 宗教史話(韓國佛敎研究院, 1978), pp. 102-5와 李一徹, 世界의 民話(正音社, 1974), p. 149에도 있다.

23) 金鉉龍, Op.cit., pp. 346-50, 張鴻在, 「淑香伝」에 나타난 거북(=竜)의 報恩思想, 國語國文學 55-57 合輯(國語國文學會, 1972.)

24) 조규익, 古代小說에 反映된 「龍」 報恩小說의 一樣相, 海軍第2士官學校論文集3 (1981).

25) 活字本, p.481f., pp. 550-2.

이를 보면 양승상이 각처에서 들어온 생일 선물 중에서 빛이 백설갈고 광채가 영롱한 고기 두 마리를 물에 넣어 살려주는 施恩 과정이 水族類 보은설화의 전반부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설화 두 편을 골라 그 서사단락을 順次的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살려 준 고기의 보은²⁶⁾

- ① 신장수 총각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붕어를 사서 좋아준다.
- ② 붕어는 그 보답으로 술잔을 하나 준다.
- ③ 술잔으로 쌀을 풀 때마다 두 배가 되어 큰 부자가 된다.

잉어 살려 주어서 용녀 얻고 사또 된 숫장수²⁷⁾

- ① 숫장수가 큰 잉어를 잡았다가 이상해서 좋아준다.
- ② 잉어가 은혜를 갚았다며 용궁에 데려가면서 제일 작은 반지를 얻어가라고 한다.
- ③ 얻어온 반지에서 여자가 나와 밥상을 차려 놓는 것을 보고 붙잡아 부부가 되고 요술로 부자가 된다.
- ④ 사또가 색시를 빼앗으려고 내기바둑을 두자고 해서 색시가 가르쳐준 대로 하여 이기고 사또가 된다.
- ⑤ 사또가 또 전쟁을 하자고 해서 용궁에서 얻은 두레박 속에서 나온 군사로 이긴다.

소설 속에 나오는 고기는 서해 용왕의 아들임이 후에 드러나는데, 이는 水族類 보은설화에서 살려준 水族類가 모두 용왕의 아들임과 일치한다. 그리고 보은 과정에서 용왕의 신통한 힘을 빌려 은혜에 보답한다는 점도 일치하는데, 본 소설에서는 동필적에게 죽게된 왕부인이 구돌평의 도움으로 옥졸이 취한 사이에 감옥에서 탈출하여 달아나다가 앞에 강이 막혀 追兵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에 서해 용녀가 나타나 이를 배에 태워 순식간에 남경까지 천리를 달려 구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려준 고기가 용왕의 두 아들 이라든지 용녀가 恩人을 배에 태워 천리를 순식간에 달린다는 등은 이 소설이 伝奇的인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水族類 보은설화는 施恩 과정 속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 있고 보은 과정 속에도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따라서 이 설화를 수용하고 있는 소설도 伝奇的인 성격을

26) 林哲宰, Op.cit., p. 63.

27) 대계 5-2 : 101.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설화의 수용에 있어서도 施恩 뒤에 곧 보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다. 施恩과 보은 행위 사이에서 전개된 사건을 요약해보면, 양승상이 죽은 뒤 동필적이 권세를 장악하고 왕소저를 차지하려 했으나 왕소저는 부친의 3년상을 마친 후 양세충과 결혼하고, 동필적과 조간의 모함으로 양세충은 옥에 갇히었다가 귀양가고, 동필적의 모함으로 왕부인은 옥에 갇히고 거기서 유복자를 해산하며 화익삼과 증운효 두 사람은 피로 양세충의 유복자를 감옥에서 빼와 증운효가 몰래 기른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70여 면에 걸쳐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의 活人譚의 수용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소설의 사건 전개가 설화보다 복잡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설화의 우연성을 탈피하기 위한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施恩과 보은도 二代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으니, 즉 양승상이 龍子에게 베푼 은혜가 양승상의 며느리인 왕부인에게 갚아지는 것이 그것이다.

본 소설에서 흰 옷과 검은 관을 한 노인이 양승상의 꿈에 나타나 물가에서 놀다가 禍網에 걸려 죽게 된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전에 부탁했는데 양승상이 그 꿈의 길흉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乞命 話素는 구비설화에는 없는 것으로서 문헌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꿈에 노인이 나타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여 막 잡으려는 잉어를 놓아주었다는 설화가 芝峰類說에 있고, 꿈에 두 명이 나타나 乞命하는 것을 그 뜻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 날 얻은 잉어 두 마리를 놓아주니 수명이 1년 연장되었다는 太平廣記의 劉之亨의 설화가 있다.²⁸⁾

IV. 결 론

지금까지 고소설 보심록이 보은설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보심록의 순차적 단락 구조를 통해서 4가지 유형의 보은 구조를 분

28) 金鉉龍, Op.cit., p. 121.

석하였고, 이 보은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이 소설이 수용하고 있는 보은설화를 두 가지로 보고 이들 설화의 소설적 수용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설화의 소설화 과정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설의 미학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소설과 같이 도덕소설 내지 윤리소설로 분류되어 교훈적 주제 이외에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작품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해온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① 보심록의 보은 구조는 當代 보은형, 下代 보은형, 결합형, 3대 보은형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② 이 소설이 수용하고 있는 보은설화에는 活人譚과 水族類 보은설화의 두 유형이 있다.

③ 活人譚의 수용에 있어서는 빚을 갚지 못하여 물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이 은혜를 입고 살아난 후에 원조자의 도움을 받아 은혜를 갚는다는 설화의 전반부를 수용하고 있다.

④ 보은의 과정에 있어서 원조자가 없다는지 우연성이 제거된 점은 본 소설이 설화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水族類 보은설화의 수용에 있어서도 水族類가 죽을 고비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난 후에 은혜를 갚는다는 설화의 전반부를 수용하고 있다.

⑥ 이 설화는 중국 설화의 영향이라기보다 고대부터 이 땅에 자생했던 설화와 불교의 放生儀禮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⑦ 이러한 설화는 伝奇的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소설적 수용에 있어서도 그러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⑧ 施恩과 보은 사이의 시간상의 간격이 크다는 점은 두 설화의 수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설의 구성이 설화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설화의 우연성을 벗어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